

주요 노동동향

● 생산 및 물가 동향

◆ 2017년 8월 생산 전년동월대비 2.6% 증가(전월대비 동일)

- 전산업 생산은 서비스업, 광공업, 건설업의 증가 영향으로 전년동월에 비해 2.6% 증가함(전월대비 건설업은 감소했으나 서비스업, 제조업 모두 증가해 보합).
- 제조업 생산은 전자부품(17.8%), 자동차(14.8%), 기계장비(17.1%) 등에서 증가했으나 기타운송장비(-37.9%), 금속가공(-4.7%), 비금속광물(-6.7%) 등에서 감소해 전년동월대비 2.9% 상승함(전월대비 0.5% 증가).
- 서비스업 생산은 숙박·음식점(-3.9%), 전문·과학·기술(-1.8%), 예술·스포츠·여가(-2.2%) 등에서 감소하였으나, 금융·보험(4.9%), 보건·사회복지(6.6%), 출판·영상·방송통신·정보(3.6%), 부동산·임대(5.0%), 사업시설관리·사업지원(6.1%) 등이 늘어 2.1% 증가함(전월대비 0.1% 증가).

◆ 2017년 8월 소비는 전년동월대비 0.8% 증가, 설비투자는 전년동월대비 13.2% 증가

- 소매판매액지수는 음식료품 등 비내구재(-1.1%)와 의복 등 준내구재(-1.7%) 판매는 줄었으나, 승용차 등 내구재(5.6%) 판매가 늘어 전년동월대비 0.8% 증가함(전월대비 1.0% 감소).
- 설비투자는 특수산업용기계 등 기계류(15.3%) 및 자동차 등 운송장비(7.3%) 투자가 늘어 전년동월대비 13.2% 증가함(전월대비 0.3% 감소).

○ 건설기성(불변)은 전년동월대비 8.1% 증가하였고, 건설수주(경상)는 공장·창고, 주택 등 건축(0.9%)에서 증가하였으나, 철도·궤도, 발전·통신 등 토목(-14.9%)에서 줄어 전년동월에 비해 3.4% 감소함.

◆ 2017년 8월 동행종합지수는 전월대비 0.3%, 선행종합지수 전월대비 0.5% 상승

○ 현재의 경기상황을 보여주는 동행지수 순환변동치는 전월대비 0.1%p 상승함.

○ 향후 경기국면을 예고해 주는 선행지수 순환변동치는 전월대비 보합

◆ 2017년 8월 소비자물가지수 전년동월대비 2.1% 상승(생활물가지수 전년동월대비 2.9% 상승)

○ 2017년 9월 소비자물가지수는 103.59(2015년=100)로 나타나 전년동월대비 2.1% 상승함(전월대비 0.1% 상승).

〈표 1〉 최근 경제일반 동향

(단위 : %, 전년대비, 전년동기대비, 전년동월대비, ()안은 전월대비)

		연간			분기								월		
		2014	2015	2016	2015		2016				2017		2016	2017	
					3/4	4/4	1/4	2/4	3/4	4/4	1/4	2/4p	8월	7월p	8월p
생산	전산업	1.4	1.9	3.0	2.5	2.7	2.1	3.2	3.0	3.5	3.9	2.7	4.5	2.0(1.0)	2.6(0.0)
	광공업	0.2	-0.3	1.0	0.4	0.4	-0.3	0.7	0.5	2.8	3.7	0.5	2.2	-0.2(1.7)	2.7(0.4)
	제조업	0.3	-0.3	1.0	0.2	0.6	-0.5	0.9	0.6	2.9	3.8	0.4	2.1	-0.4(1.6)	2.9(0.5)
	건설업	-0.7	5.0	15.4	8.7	10.7	13.2	15.8	14.5	17.7	17.9	13.6	2.1	-0.4(3.0)	2.9(-2.0)
	서비스업	2.3	2.9	3.0	2.9	3.3	2.8	3.5	3.6	2.1	2.6	2.3	4.4	2.2(0.6)	2.1(0.1)
소비	소비재 판매	2.0	4.1	4.3	3.6	6.3	5.0	5.9	3.5	2.5	1.9	1.7	6.2	3.5(0.1)	0.8(-1.0)
투자	설비투자	5.2	6.9	-1.3	10.8	2.0	-7.6	0.6	-4.7	5.9	18.1	17.7	3.3	25.1(-5.1)	13.2(-0.3)
물가		1.3	0.7	1.0	0.6	0.9	0.9	0.8	0.7	1.5	2.1	1.9	1.3		2.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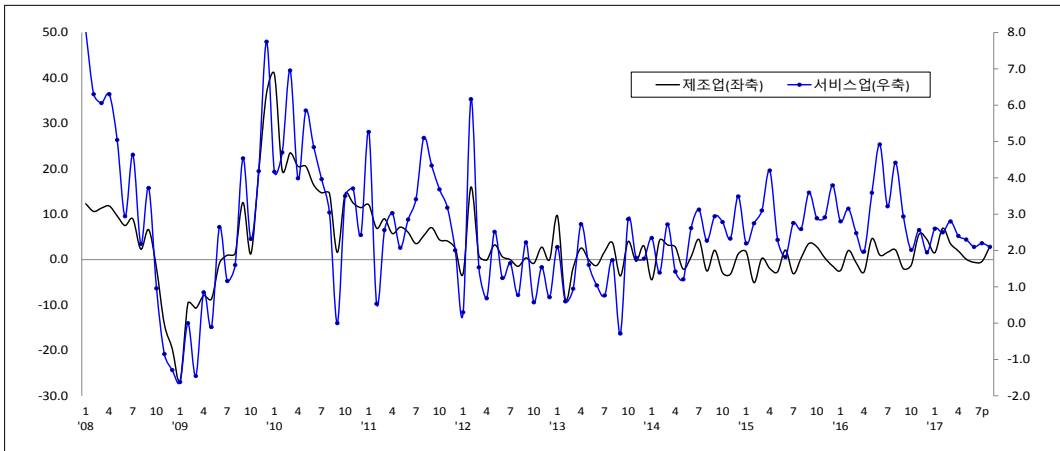
- 주 : 1) 광공업 생산은 광업(B), 제조업(C), 전기·가스업(D)을 포함하나 거의 대부분 제조업을 대변함.
- 2) 서비스업 생산지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제9차 개정, 2007. 12. 28)상의 13개 대분류(도소매업(G), 운수업(H), 숙박 및 음식점업(I), 출판·영상·방송통신 및 정보서비스업(J), 금융·보험업(K), 부동산 및 임대업(L), 전문·과학 및 기술서비스업(M), 사업시설관리 및 사업지원서비스업(N), 공공행정·국방 및 사회보장 행정(O), 교육서비스업(P), 보건업 및 사회복지서비스업(Q), 예술·스포츠 및 여가관련 서비스업(R), 협회 및 단체, 수리 및 기타 개인서비스업(S), 하수·폐기물 처리, 원료재생 및 환경복원업(E))를 포괄하며, 이 중 하수·폐기물 처리, 원료재생 및 환경복원업(E) 산업에서 원료재생 및 환경복원업은 제외함.
- 3) 전산업의 2016년 및 분기지수는 농림어업을 제외한 수치임.
- 4) 물가상승률은 2016년 9월, 2017년 8월과 9월 기준임.
- 5) p는 잠정치임.
- 6) ()안은 전월비 기준임.

자료 : 통계청, 『산업활동동향』, 『소비자물가동향』, 각호.

- 소비자물가지수의 지출목적별 동향을 보면, 전년동월대비 주택·수도·전기·연료(3.9%), 식료품·비주류음료(3.3%), 음식·숙박(2.4%), 교통(2.7%), 기타상품·서비스(2.7%) 등 11개 부문은 상승하였고 오락·문화(-1.4%)는 하락함.
- 생활물가지수는 식품(3.1%), 식품 이외(2.7%) 모두 상승해 전년동월대비 2.9% 상승함(전월대비 0.3% 상승).

[그림 1] 제조업 및 서비스업 생산증가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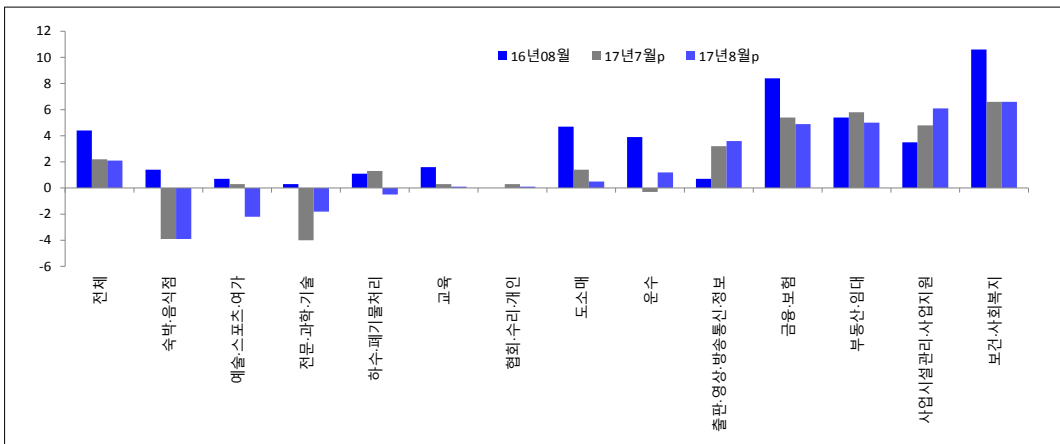
(단위 : %, 전년동월대비)



주 : p는 잠정치임.
자료 : 통계청 KOSIS.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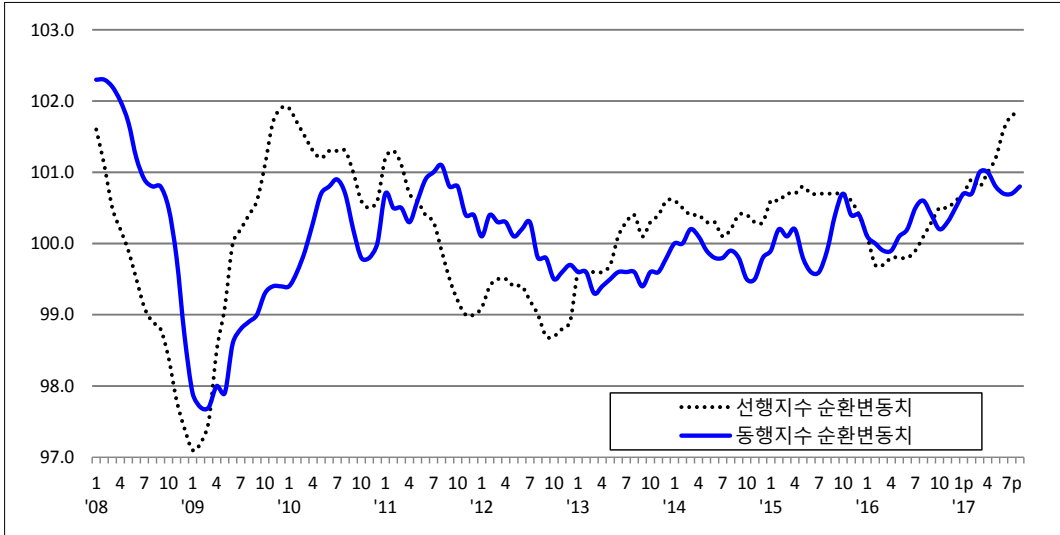
[그림 2] 서비스업 업종별 생산 추이

(단위 : %, 전년동월대비)



주 : p는 잠정치임.
자료 : 통계청 KOSIS.

[그림 3] 경기선행지수 순환변동치 · 경기동행지수 순환변동치 추이(2010=100)



주 : p는 잠정치임.
 자료 : 통계청 KOSIS.

(정성미, 동향분석실 전문위원)

고용 동향

◆ 경제활동인구 및 취업자 증가폭 확대

- 2017년 9월 중 경제활동인구는 27,779천 명으로 전년동월대비 263천 명(1.0%) 증가함.
 - 취업자는 26,844천 명으로 314천 명 증가하였고, 성별로 보면 여성 취업자는 231천 명 증가하여 남성 취업자 증가 83천 명보다 약 3배 많음.
 - 실업자는 51천 명 감소한 935천 명으로 실업률은 3.4%(0.2%p 감소), 남성 실업자(585천 명)는 전년동월대비 2천 명 감소하여 실업률은 3.7%(전년동월대비 보합) 기록했고 여성 실업자(350천 명)는 49천 명 증가하여 3.0%(0.4%p 감소) 기록했음.
- 2017년 9월 중 경제활동참가율은 63.4%로 전년동월대비 0.1%p 상승함.
 - 성별로 보면 남성(74.1%)은 0.2%p 감소하였고, 여성(53.1%)은 0.4%p 상승해 여성의 노동 시장 참여가 더 활발한 것으로 나타남.
- 2017년 9월 중 고용률은 61.3%로 전년동월대비 0.3%p 상승함.
 - 여성이 상대적으로 활발한 노동시장 참여를 보였는데 여성 고용률은 0.7%p 증가한 51.6%를 기록하였고, 남성 고용률은 0.1%p 감소한 71.4%를 기록함.
 - 15~64세 고용률은 0.5%p 상승한 66.9%를 기록하여 15세 이상 고용률에 비해 5.6%p 높게 나타남(그림 1 오른쪽 참조).
 - 15~64세 남성 고용률은 0.1%p 상승한 76.3%를 기록했고 여성은 0.8%p 상승한 57.3%를 기록했음.
- 2017년 9월 중 비경제활동인구는 16,026천 명으로 전년동월대비 54천 명(0.3%) 증가함.
 - 비경제활동 사유 중 '육아'와 '가사'는 114천 명 감소하였고 '재학'과 '통학'은 143천 명 감소가 지속중인 가운데, '쉬었음'은 187천 명 증가하여(그림 2 오른쪽) 비경제활동인구 증가가 지속됨.
 - 지난해 10월 이후 증가세가 지속되고 있는 '취업준비' 사유는 2017년 9월 85천 명 증가하였고 '연로'에서는 65천 명 증가하였음.

〈표 1〉 주요 고용지표

(단위 : 천 명, %, 전년대비, 전년동월대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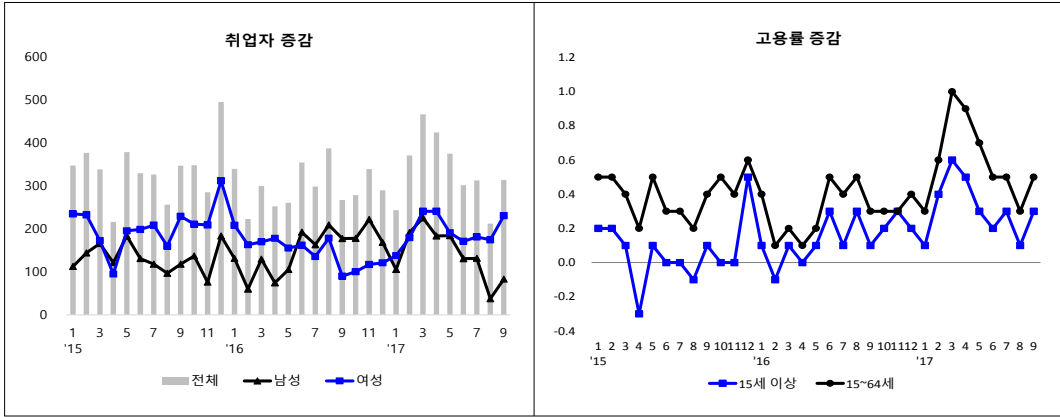
		2014	2015	2016	2015	2016	2017		
					9월	9월	7월	8월	9월
15세 이상	생산가능인구	42,513	43,017	43,416	43,119	43,488	43,776	43,792	43,805
	(증가율)	(1.0)	(1.2)	(0.9)	(1.2)	(0.9)	(0.8)	(0.8)	(0.7)
	경제활동인구	26,536	26,913	27,247	27,129	27,516	27,879	27,740	27,779
	(증가율)	(2.6)	(1.4)	(1.2)	(1.4)	(1.4)	(1.1)	(0.8)	(1.0)
	취업자	25,599	25,936	26,235	26,264	26,531	26,916	26,740	26,844
	(증가율)	(2.1)	(1.3)	(1.2)	(1.3)	(1.0)	(1.2)	(0.8)	(1.2)
	증가수	533	337	299	347	267	313	212	314
	남성	(266)	(132)	(151)	(118)	(177)	(131)	(38)	(83)
	여성	(267)	(205)	(148)	(229)	(90)	(181)	(174)	(231)
	참가율	62.4	62.6	62.8	62.9	63.3	63.7	63.3	63.4
	남성	(74.0)	(73.8)	(73.9)	(73.9)	(74.3)	(74.6)	(74.1)	(74.1)
	여성	(51.3)	(51.8)	(52.1)	(52.4)	(52.7)	(53.2)	(53.0)	(53.1)
	고용률	60.2	60.3	60.4	60.9	61.0	61.5	61.1	61.3
	남성	(71.4)	(71.1)	(71.1)	(71.4)	(71.5)	(71.9)	(71.2)	(71.4)
	여성	(49.5)	(49.9)	(50.2)	(50.9)	(50.9)	(51.5)	(51.3)	(51.6)
실업자	937	976	1,012	866	986	963	1,001	935	
실업률	3.5	3.6	3.7	3.2	3.6	3.5	3.6	3.4	
남성	(3.6)	(3.7)	(3.8)	(3.4)	(3.7)	(3.6)	(3.8)	(3.7)	
여성	(3.5)	(3.6)	(3.6)	(2.9)	(3.4)	(3.3)	(3.3)	(3.0)	
비경제활동인구	15,977	16,105	16,169	15,990	15,972	15,897	16,052	16,026	
(증가율)	(-1.5)	(0.8)	(0.4)	(0.9)	(-0.1)	(0.2)	(0.7)	(0.3)	
15~64세	참가율	67.8	68.3	68.7	68.4	69.0	69.7	69.4	69.4
	남성	(78.6)	(78.6)	(78.9)	(78.6)	(79.2)	(79.8)	(79.3)	(79.4)
	여성	(57.0)	(57.9)	(58.4)	(58.1)	(58.7)	(59.4)	(59.2)	(59.2)
	고용률	65.3	65.7	66.1	66.1	66.4	67.2	66.7	66.9
	남성	(75.7)	(75.7)	(75.8)	(75.8)	(76.2)	(76.8)	(76.2)	(76.3)
여성	(54.9)	(55.7)	(56.2)	(56.3)	(56.5)	(57.4)	(57.1)	(57.3)	

주 : 고용률 = (취업자 / 생산가능인구)*100, 참가율 = (경제활동인구 / 생산가능인구)*100, 실업률 = (실업자 / 경제활동인구)*100

자료 : 통계청(2017. 10), 『2017년 9월 고용동향』.

[그림 1] 성별 취업자 및 고용률 증감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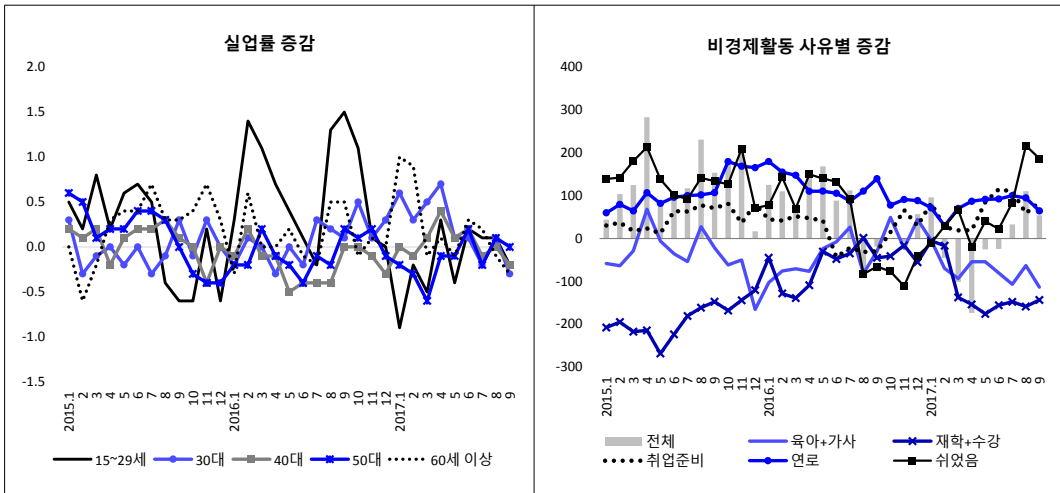
(단위 : 천 명, %p, 전년동월대비)



자료 : 통계청 KOSIS.

[그림 2] 실업률 및 비경제활동 사유별 증감 추이

(단위 : 천 명, %p 전년동월대비)



주 : 비경제활동 사유 중 재학+수강은 정규교육기관 재학과 입시학원, 진학준비를 포함하고 취업준비는 취업준비와 취업을 위한 학원·기관통학(고시학원, 직업훈련기관 등)을 포함함.

자료 : 통계청 KOSIS.

◆ 50대 이상 고령층 취업자 증가 지속

○ 2017년 9월 중 연령별 취업자는 20대(42천 명, 1.1%)와 40대(68천 명, 1.0%)에서 감소가 지속 중인 가운데 60세 이상(274천 명, 6.7%), 50~59세(110천 명, 1.8%), 30대(27천 명, 0.5%)에서는 증가함.

- 2017년 1월 이후 50대에서 10만 명 이상, 60대에서 20만 명 이상의 취업자 증가가 지속중임(그림 3 참조).
- 20대 후반 취업자는 전년동월대비 25천 명 증가했으나 20대 초반에서 취업자가 67천 명 감소하여 20대 취업자는 감소하였음.
- 30대 초반은 인구 감소의 영향으로 취업자 감소가 지속중인 가운데 30대 후반 취업자 증가폭이 확대되어 30대 취업자는 2017년 9월 전년동월대비 27천 명 증가로 전환됨.

〈표 2〉 연령별 취업자 동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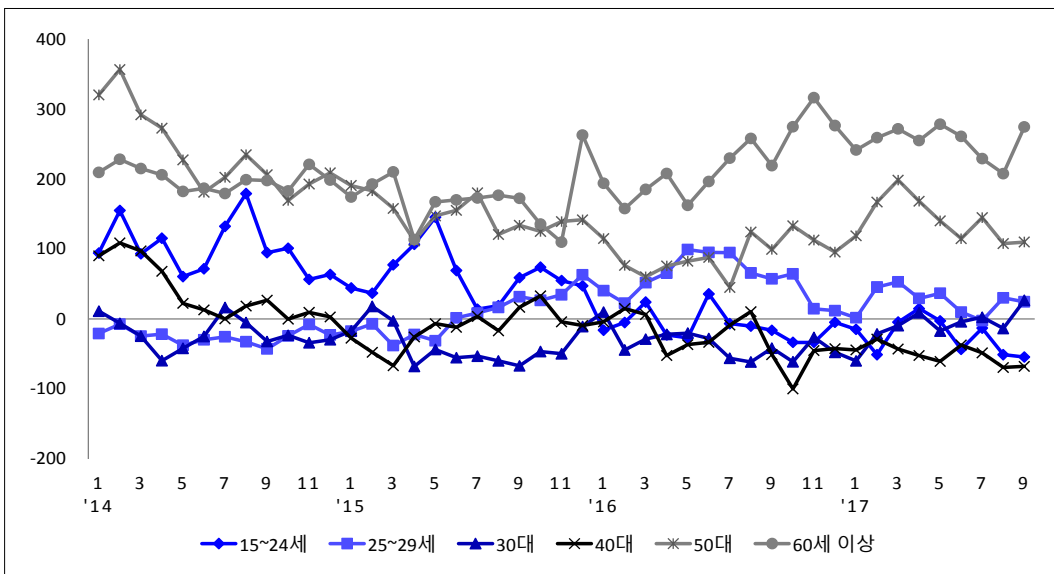
(단위 : 천 명, %)

	2014	2015	2016	2015	2016	2017		
				9월	9월	7월	8월	9월
전 체	25,599 (2.1)	25,936 (1.3)	26,235 (1.2)	26,264 (1.3)	26,531 (1.0)	26,916 (1.2)	26,740 (0.8)	26,844 (1.2)
15~19세	244 (9.1)	245 (0.1)	240 (-2.0)	224 (-3.0)	220 (-2.0)	280 (0.9)	254 (-7.0)	232 (5.6)
20~29세	3,625 (1.6)	3,693 (1.9)	3,746 (1.4)	3,732 (2.7)	3,777 (1.2)	3,818 (-0.5)	3,771 (-0.0)	3,735 (-1.1)
20~24세	1,359 (6.4)	1,422 (4.6)	1,417 (-0.3)	1,439 (4.8)	1,428 (-0.8)	1,442 (-1.1)	1,406 (-2.2)	1,361 (-4.7)
25~29세	2,266 (-1.1)	2,272 (0.2)	2,329 (2.5)	2,292 (1.4)	2,350 (2.5)	2,377 (-0.1)	2,365 (1.3)	2,374 (1.0)
30~39세	5,714 (-0.4)	5,676 (-0.7)	5,640 (-0.6)	5,671 (-1.2)	5,629 (-0.7)	5,646 (0.0)	5,599 (-0.2)	5,656 (0.5)
30~34세	2,908 (0.4)	2,863 (-1.5)	2,726 (-4.8)	2,861 (-2.4)	2,692 (-5.9)	2,621 (-3.8)	2,596 (-3.7)	2,611 (-3.0)
35~39세	2,806 (-1.2)	2,813 (0.2)	2,914 (3.6)	2,810 (0.1)	2,937 (4.5)	3,025 (3.6)	3,003 (3.0)	3,045 (3.7)
40~49세	6,682 (0.6)	6,668 (-0.2)	6,640 (-0.4)	6,707 (0.2)	6,656 (-0.8)	6,622 (-0.7)	6,592 (-1.0)	6,588 (-1.0)
50~59세	5,845 (4.3)	5,994 (2.5)	6,086 (1.5)	6,049 (2.3)	6,148 (1.6)	6,249 (2.4)	6,233 (1.8)	6,258 (1.8)
60세 이상	3,489 (6.1)	3,661 (4.9)	3,884 (6.1)	3,882 (4.6)	4,101 (5.6)	4,301 (5.6)	4,291 (5.1)	4,375 (6.7)

주 : () 안의 수치는 전년대비, 전년동월대비 증가율.
 자료 : 통계청(2017. 10), 『2017년 9월 고용동향』.

[그림 3] 연령별 취업자 증감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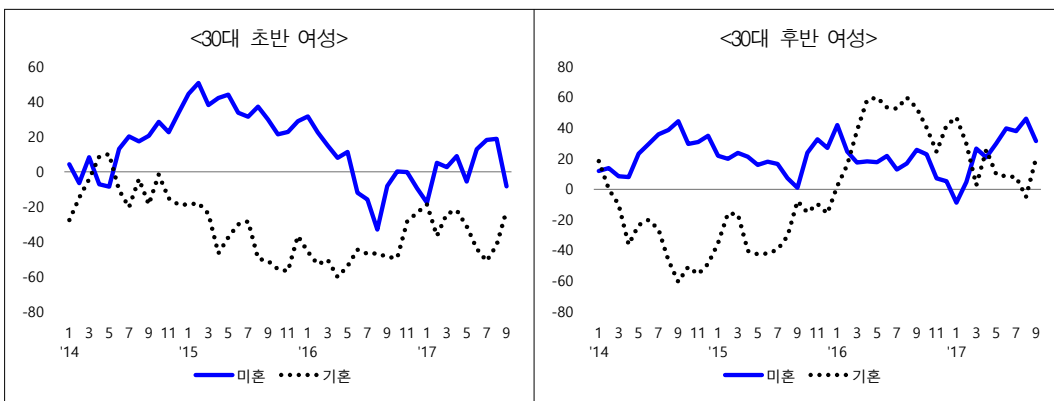
(단위 : 천 명, 전년동월대비)



자료 : 통계청 KOSIS.

[그림 4] 연령별 취업자 증감 추이

(단위 : 천 명, 전년동월대비)



자료 : 통계청 KOSIS.

◆ 임금근로자 증가 및 비임금근로자 감소

- 2017년 9월 취업자 중 임금근로자는 19,964천 명으로 전년동월대비 318천 명(1.6%) 증가했고, 비임금근로자는 6,880천 명으로 전년동월대비 5천 명(0.1%) 감소했음.
- 2017년 9월 임금근로자 중 임시직 근로자가 전년동월대비 107천 명 감소하여 11개월 연

속 10만 명 이상 감소하여 임금근로자 증가의 하방압력으로 작용하는 반면, 상용근로자는 375천 명 증가해 임금근로자를 지지중입(그림 5 왼쪽).

- 한편 고용원이 없는 자영업자는 2016년 9월 대비 39천 명 증가했고 고용원 있는 자영업자는 7천 명 증가했으나 무급가족종사자는 50천 명 감소하여 비임금근로자는 감소했음 (그림 5 오른쪽).

〈표 5〉 종사상 지위별 및 취업시간대별 취업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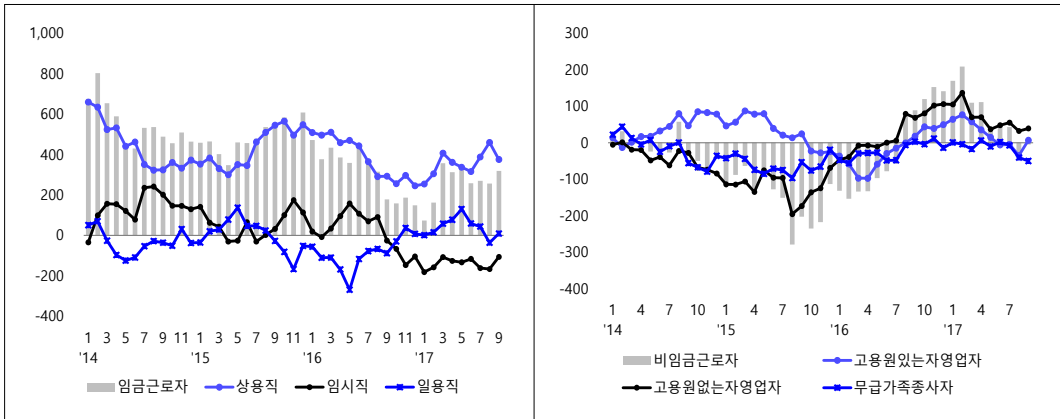
(단위: 천 명, %)

	2014	2015	2016	2015	2016	2017		
				9월	9월	7월	8월	9월
전 체	25,599 (2.1)	25,936 (1.3)	26,235 (1.2)	26,264 (1.3)	26,531 (1.0)	26,916 (1.2)	26,740 (0.8)	26,844 (1.2)
비임금근로자	6,857 (-0.2)	6,706 (-2.2)	6,689 (-0.3)	6,796 (-2.9)	6,885 (1.3)	6,867 (0.6)	6,857 (-0.6)	6,880 (-0.1)
고용원이 있는 자영업자	1,550 (2.7)	1,581 (2.0)	1,561 (-1.3)	1,578 (1.6)	1,596 (1.1)	1,566 (-0.3)	1,559 (-2.2)	1,603 (0.4)
고용원이 없는 자영업자	4,102 (-0.9)	3,982 (-2.9)	4,009 (0.7)	4,015 (-4.1)	4,083 (1.7)	4,131 (1.3)	4,137 (0.8)	4,122 (1.0)
무급가족종사자	1,205 (-1.3)	1,144 (-5.1)	1,119 (-2.2)	1,203 (-4.3)	1,206 (0.2)	1,170 (-0.6)	1,160 (-3.4)	1,156 (-4.2)
임금근로자	18,743 (3.0)	19,230 (2.6)	19,546 (1.6)	19,468 (2.9)	19,646 (0.9)	20,049 (1.4)	19,883 (1.3)	19,964 (1.6)
상용근로자	12,156 (3.8)	12,588 (3.6)	12,974 (3.1)	12,757 (4.5)	13,050 (2.3)	13,379 (3.0)	13,426 (3.5)	13,426 (2.9)
임시근로자	5,032 (2.9)	5,086 (1.1)	5,104 (0.4)	5,170 (0.6)	5,144 (-0.5)	5,096 (-3.1)	5,029 (-3.2)	5,038 (-2.1)
일용근로자	1,555 (-2.2)	1,556 (0.1)	1,469 (-5.6)	1,541 (-1.7)	1,452 (-5.8)	1,574 (2.8)	1,428 (-2.5)	1,501 (3.4)
1~17시간	1,177 (0.5)	1,222 (3.9)	1,273 (4.1)	1,193 (4.2)	1,227 (2.9)	1,333 (4.0)	1,575 (3.6)	1,352 (10.2)
18~35시간	2,792 (-21.2)	2,776 (-0.6)	3,206 (15.5)	2,470 (3.6)	2,576 (4.3)	2,816 (7.3)	6,799 (-2.3)	2,719 (5.5)
36시간 이상	21,220 (6.4)	21,535 (1.5)	21,346 (-0.9)	22,295 (1.1)	22,375 (0.4)	22,413 (0.6)	17,751 (2.2)	22,468 (0.4)
주당 평균 근로시간	43.8	43.6	43.0	44.0	43.4	43.2	39.7	42.9

주: () 안의 수치는 전년동기대비, 전년동월대비 증가율.
 자료: 통계청(2017. 10), 『2017년 9월 고용동향』.

[그림 5] 임금근로자(좌) 및 비임금근로자(우) 취업자 증감

(단위 : 천 명, 전년동월대비)



자료 : 통계청 KOSIS.

◆ 건설업 취업자 증가폭 회복 및 공공행정 취업자 증가

- 제조업 취업자가 9월 20천 명 증가로 지난달(25천 명 증가)에 이어 큰 증가폭을 보여주지 못하고 있는 반면, 건설업에서는 취업자가 큰 폭으로 증가하여 증가폭을 회복함.
 - 2017년 9월 중 산업별 취업자의 전년동월대비 증감을 보면 8월 주춤했던 건설업 취업자 증가폭(34천 명)이 이전 수준으로 회복되어 108천 명 증가를 기록하였고 건설업과 연관된 부동산 및 임대업 취업자는 33천 명 증가하였음.
 - 보건업 및 사회복지업은 건조한 취업자 증가세를 이어가면서 9월 62천 명 취업자가 증가하였고 공공행정 부문도 취업자가 크게 늘어 9월 98천 명 증가를 기록하였음.
 - 반면 2017년 8월 감소폭을 더했던 숙박 및 음식점업은 9월 11천 명 감소를 나타내고 있으며, 7월 감소로 전환했던 도소매업은 증가세를 이어가면서 48천 명 증가하였음(그림 6 참조).
 - 전문·과학·기술서비스업의 취업자 감소가 5달째 이어지고 있으며 9월 전년동월대비 44천 명 취업자가 감소하였고 이 중 상용직의 감소(42천 명 감소)가 두드러짐.

〈표 6〉 산업별 취업자

(단위 : 천 명, %, 전년대비, 전년동월대비)

	2014	2015	2016	2015	2016	2017		
				9월	9월	7월	8월	9월
전 산업	25,599 (2.1)	25,936 (1.3)	26,235 (1.2)	26,264 (1.3)	26,531 (1.0)	26,916 (1.2)	26,740 (0.8)	26,844 (1.2)
농림어업	1,452 (-4.5)	1,345 (-7.4)	1,286 (-4.4)	1,489 (-7.5)	1,423 (-4.4)	1,426 (1.7)	1,434 (1.3)	1,452 (2.1)
광업	13 (-15.8)	14 (2.0)	19 (38.6)	14 (10.7)	19 (35.3)	24 (23.1)	24 (28.4)	24 (25.9)
제조업	4,330 (3.5)	4,486 (3.6)	4,481 (-0.1)	4,512 (3.8)	4,436 (-1.7)	4,513 (1.1)	4,442 (0.6)	4,456 (0.4)
전기·가스·증기·수도	83 (-8.3)	93 (12.1)	89 (-3.8)	94 (10.0)	88 (-6.5)	85 (-8.0)	84 (-5.5)	87 (-0.7)
하수, 원료재생·복원	87 (20.1)	88 (1.0)	96 (9.0)	89 (4.7)	102 (14.5)	102 (5.3)	93 (-4.5)	92 (-9.7)
건설업	1,796 (2.4)	1,823 (1.5)	1,845 (1.2)	1,838 (0.0)	1,879 (2.2)	1,976 (5.4)	1,925 (1.8)	1,987 (5.8)
도매 및 소매업	3,792 (3.6)	3,783 (-0.2)	3,729 (-1.4)	3,763 (-1.2)	3,749 (-0.4)	3,759 (-0.3)	3,787 (0.7)	3,797 (1.3)
운수업	1,407 (-0.5)	1,409 (0.2)	1,412 (0.2)	1,413 (1.2)	1,398 (-1.0)	1,385 (-0.9)	1,382 (-1.0)	1,389 (-0.7)
숙박 및 음식점업	2,098 (6.4)	2,179 (3.9)	2,277 (4.5)	2,203 (3.8)	2,305 (4.6)	2,312 (-0.8)	2,301 (-1.7)	2,294 (-0.5)
출판·영상·방송통신 등	714 (3.1)	772 (8.1)	786 (1.8)	780 (11.3)	792 (1.5)	768 (-5.3)	792 (-1.4)	779 (-1.7)
금융 및 보험업	837 (-3.0)	789 (-5.8)	797 (0.9)	793 (-4.5)	807 (1.7)	771 (-4.7)	784 (-2.4)	788 (-2.4)
부동산업 및 임대업	508 (4.6)	535 (5.3)	570 (6.7)	542 (3.2)	577 (6.6)	653 (12.5)	621 (6.7)	611 (5.7)
전문·과학·기술서비스	1,025 (0.3)	1,048 (2.3)	1,102 (5.2)	1,066 (4.7)	1,104 (3.6)	1,094 (-2.6)	1,067 (-3.1)	1,060 (-4.0)
사업서비스	1,180 (0.6)	1,249 (5.8)	1,293 (3.5)	1,273 (10.1)	1,304 (2.4)	1,309 (1.2)	1,315 (1.6)	1,315 (0.9)
공공행정 등	957 (-0.8)	936 (-2.2)	993 (6.1)	952 (-3.0)	1,004 (5.4)	1,066 (2.4)	1,090 (7.4)	1,102 (9.8)
교육서비스업	1,807 (3.4)	1,818 (0.6)	1,846 (1.5)	1,834 (0.0)	1,871 (2.0)	1,922 (4.8)	1,883 (2.0)	1,854 (-0.9)
보건업 및 사회복지	1,693 (8.9)	1,770 (4.5)	1,851 (4.6)	1,829 (3.9)	1,905 (4.2)	1,937 (3.0)	1,935 (2.5)	1,967 (3.3)
예술·스포츠·여가	394 (0.3)	424 (7.9)	406 (-4.3)	423 (4.4)	403 (-4.8)	445 (7.3)	426 (5.9)	422 (4.7)
협회·단체·수리·기타	1,299 (-1.0)	1,277 (-1.7)	1,272 (-0.4)	1,258 (-1.5)	1,283 (2.0)	1,297 (1.4)	1,284 (-0.7)	1,296 (1.1)
가구내 및 자가	116 (-32.5)	82 (-29.0)	69 (-15.5)	77 (-27.6)	67 (-12.6)	61 (-17.4)	60 (-4.9)	60 (-10.5)
국제 및 외국기관	14 (91.9)	18 (29.4)	16 (-11.5)	21 (35.1)	14 (-33.8)	12 (-30.3)	14 (-19.1)	13 (-8.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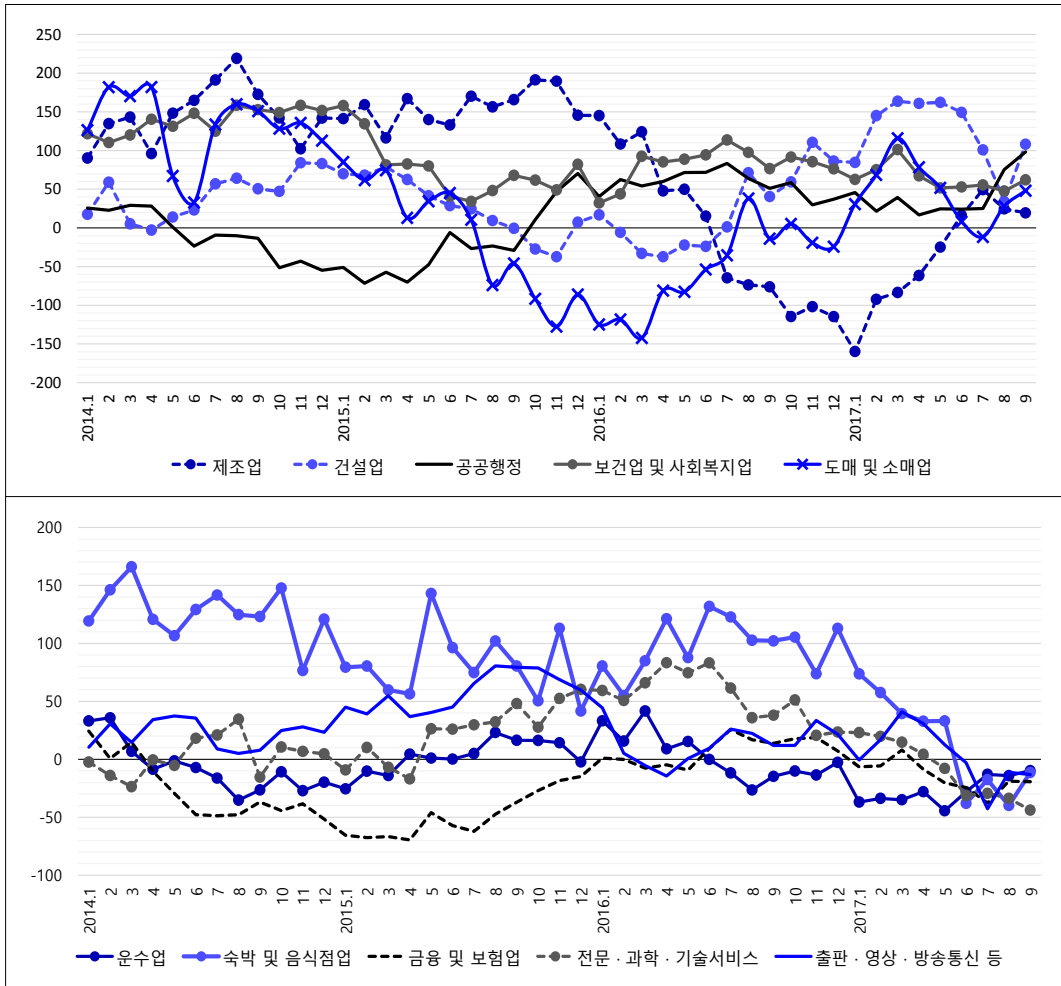
주 : 1) () 안의 수치는 전년대비, 전년동월대비 증가율.

2) 2009년부터 9차 개정 산업분류를 적용.

자료 : 통계청(2017. 10), 『2017년 9월 고용동향』.

[그림 6] 산업별 취업자 증감 추이

(단위 : 천 명, 전년동월대비)



자료 : 통계청 KOSIS.

(정현상, 동향분석실 책임연구원; 김종욱, 동향분석실 연구원)

● 임금 및 근로시간 동향

◆ 2017년 7월 명목임금은 전년동월대비 3.0% 증가

- 2017년 7월 근로자 1인당 월평균 임금총액은 3,518천 원(3.0% ↑)임.
 - 2017년 7월 상용근로자 임금총액은 전년동월대비 2.6% 상승한 3,698천 원이었으며, 비상용근로자 임금총액은 전년동월대비 4.9% 상승한 1,554천 원임.
 - 상용근로자의 전년동월대비 임금상승은 정액급여 증가폭 확대에 기인함(3.2% → 3.4%).
 - ※ 초과급여 : 연장(야근근로 포함) 및 휴일근로에 대한 수당으로 지급되는 급여
 - 특별급여 : 상여금, 성과급, 임금인상소급분, 학자금 등 정기 또는 비정기적으로 지급되는 특별한 급여
- 2017년 7월 실질임금상승률은 전년동월대비 0.7% 상승함.
 - 2017년 7월 소비자물가지수(2015=100.0)를 고려한 실질임금상승률은 소비자물가상승폭의 확대로 전년동월대비 0.7% 상승에 그침.
 - 2016년 7월 0.4%이었던 소비자물가상승률이 2017년 7월 2.2%로 상승하면서 실질임금상승률을 낮추는 요인으로 작용함.

◆ 2017년 1~7월 평균 명목임금과 실질임금은 전년동평균대비 각각 3.0%, 1.0% 상승에 그쳐 상승폭 둔화

- 특히 상용근로자의 임금상승폭(4.0% → 2.6%)이 크게 둔화함.
 - 이는 상용근로자 정액급여증가율 둔화와 특별급여 감소에 기인함. 반면 비상용근로자의 임금은 전년동평균대비 5.0% 상승하여 상승폭이 확대됨.

〈표 1〉 임금 동향(5인 이상 사업체 기준)

(단위 : 천 원, %, 2015=10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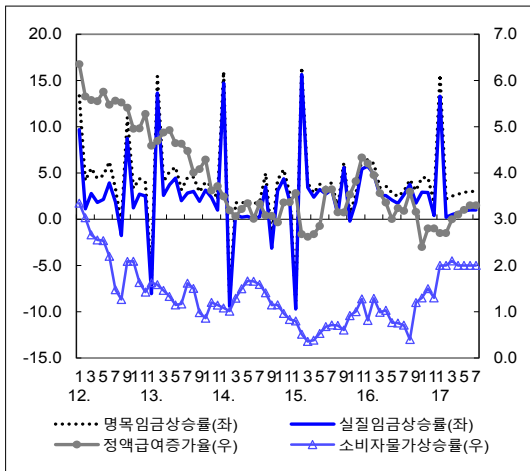
	2013	2014	2015	2016	2017			
					1~7월 평균	7월	1~7월 평균	7월
전체 근로자 임금총액	3,111 (3.9)	3,190 (2.5)	3,300 (3.5)	3,425 (3.8)	3,381 (4.0)	3,415 (3.0)	3,483 (3.0)	3,518 (3.0)
상용 근로자	임금총액	3,299 (3.8)	3,378 (2.4)	3,490 (3.3)	3,623 (3.8)	3,571 (4.0)	3,665 (2.6)	3,698 (2.6)
	정액급여	2,578 (4.4)	2,660 (3.2)	2,749 (3.3)	2,838 (3.3)	2,824 (3.5)	2,857 (3.2)	2,917 (3.3)
	초과급여	184 (1.7)	201 (9.3)	216 (7.4)	225 (3.8)	224 (3.9)	222 (4.3)	227 (1.2)
	특별급여	537 (1.8)	516 (-3.7)	525 (1.6)	560 (6.7)	523 (6.7)	525 (3.2)	521 (-0.3)
임시·일용근로자 임금총액	1,377 (6.5)	1,387 (0.7)	1,424 (2.7)	1,469 (3.1)	1,450 (2.6)	1,482 (2.3)	1,523 (5.0)	1,554 (4.9)
소비자물가지수	107.8 (1.2)	109 (1.3)	109.8 (0.7)	101.6 (1.0)	100.7 (0.8)	100.6 (0.4)	102.7 (2.0)	102.9 (2.2)
실질임금증가율	2.5	1.2	2.7	2.8	3.1	2.7	1.0	0.7

- 주 : 1) 임금근로자 명목임금임.
- 2) () 안은 전년대비, 전년동평균대비, 전년동월대비 상승률임.
- 3) 9차 산업분류 기준.

자료 : 고용노동부, 『사업체노동력조사』; 한국은행, <http://ecos.bok.or.kr>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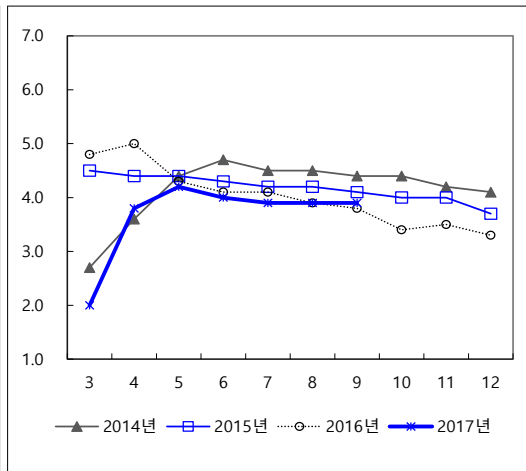
〔그림 1〕 임금상승률 추이

(단위 : %, 2015=100.0)



〔그림 2〕 협약임금 인상률 추이

(단위 : %, 월)



- 주 : 1) 협약임금 인상률이란 100인 이상 사업장의 노사가 협약으로 정한 임금인상률로서 초과급여, 특별상여금 등 변동성 급여는 제외됨. 따라서 실제로 근로자에게 지급된 명목임금의 상승률과는 다름.
- 2) 월별 협약임금 인상률은 당월분이 아니라 당월까지의 누계분 인상률임.

자료 : 고용노동부, 『사업체노동력조사』; 통계청, 『e-나라지표』, www.index.go.kr

◆ 2017년 9월 협약임금 인상률 3.9%

- 2017년 9월 임금총액 기준 협약임금 인상률은 3.9%로 전년동월대비 0.1%p 상승함.
- 2017년 9월 현재 임금결정 진도율은 48.8%로 전년동월대비 부진함.

◆ 2017년 7월 중소기업·대규모 사업체 모두 전년동월대비 임금상승폭 확대

- 2017년 7월 중소기업·대규모 사업체의 임금은 전년동월대비 각각 4.0%, 2.1% 상승함.
- 300인 미만 중소기업의 임금총액은 3,195천 원으로 전년동월대비 상승폭이 확대됨. 이는 정액급여증가율의 확대(1.2%p ↑)에 기인한 것으로 보임.
- 300인 이상 대규모 사업체의 임금총액은 4,928천 원으로 전년동월대비 상승폭이 확대됨. 대규모 사업체 상용근로자의 정액급여증가폭은 둔화된 반면, 특별급여는 증가한 것으로 나타남.

◆ 2017년 1~7월 평균 중소기업 사업체의 임금상승률은 확대된 반면, 대규모 사업체의 임금상승률은 둔화

- 2017년 1~7월 평균 대규모 사업체의 임금은 4,957천 원으로 전년동평균대비 1.0% 상승에 그친 가운데 중소기업의 임금은 3,137천 원으로 전년동평균대비 4.4% 상승함.

〈표 2〉 사업체규모별 임금 동향(5인 이상 사업체 기준)

(단위 : 천 원, %)

		2015	2016	2017			
				1~7월 평균	7월	1~7월 평균	7월
중소 규모	소 계	2,938 (3.6)	3,048 (3.7)	3,005 (3.6)	3,073 (3.6)	3,137 (4.4)	3,195 (4.0)
	상용임금총액	3,110 (3.4)	3,228 (3.8)	3,180 (3.6)	3,257 (3.9)	3,306 (4.0)	3,369 (3.4)
	정액급여	2,577 (2.9)	2,660 (3.2)	2,648 (3.2)	2,678 (3.1)	2,756 (4.1)	2,792 (4.3)
	초과급여	184 (6.6)	197 (7.3)	195 (7.2)	199 (7.8)	202 (3.6)	202 (1.6)
	특별급여	349 (5.3)	371 (6.1)	336 (5.6)	381 (7.2)	347 (3.2)	375 (-1.5)
	비상용임금총액	1,434 (3.2)	1,486 (3.6)	1,464 (3.2)	1,478 (2.9)	1,536 (4.9)	1,547 (4.7)
대규모	소 계	4,849 (3.7)	4,959 (2.3)	4,907 (2.4)	4,826 (0.5)	4,957 (1.0)	4,928 (2.1)
	상용임금총액	5,017 (3.9)	5,131 (2.3)	5,067 (2.5)	4,937 (0.6)	5,112 (0.9)	5,039 (2.1)
	정액급여	3,438 (5.1)	3,519 (2.3)	3,498 (3.0)	3,545 (2.5)	3,563 (1.9)	3,614 (2.0)
	초과급여	349 (10.4)	331 (-5.2)	334 (-5.6)	313 (-4.7)	324 (-2.7)	317 (1.2)
	특별급여	1,230 (-0.7)	1,281 (4.2)	1,236 (3.5)	1,080 (-3.9)	1,224 (-0.9)	1,108 (2.7)
	비상용임금총액	1,329 (-1.8)	1,311 (-1.4)	1,317 (-3.8)	1,529 (-4.5)	1,400 (6.3)	1,645 (7.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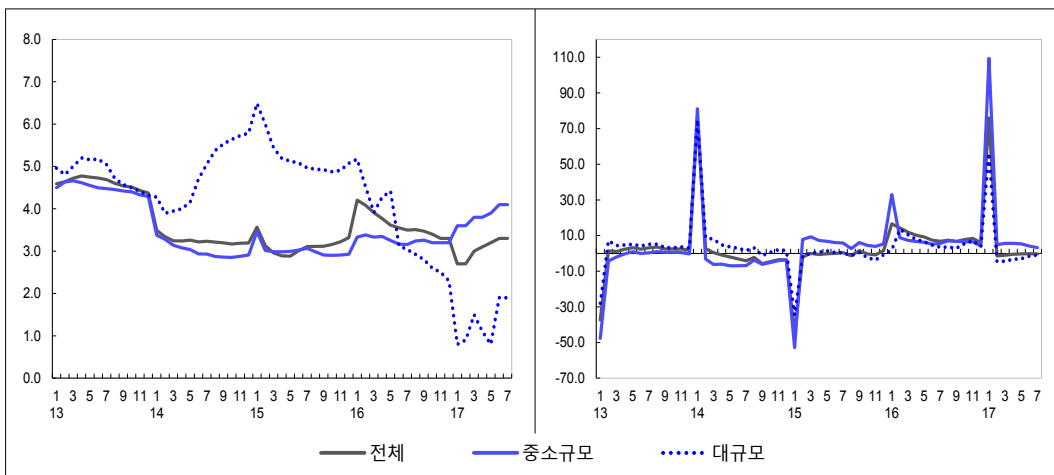
주 : 1) 임금근로자 명목임금임.

2) () 안은 전년대비, 전년동평균대비, 전년동월대비 상승률임.

자료 : 고용노동부, 『사업체노동력조사』.

- 300인 이상 대규모 사업체의 임금상승률 둔화는 상용근로자의 정액급여증가율 둔화와 특별급여 감소에서 비롯됨.

[그림 3] 1~7월 평균 사업체규모별 상용근로자 1인당 평균 정액급여증가율(좌)과 특별급여증가율(우) 추이 (단위 : %)



주 : 상용근로자의 정액급여와 특별급여의 월별 누계값 기준임.
 자료 : 고용노동부, 『사업체노동력조사』.

◆ 2017년 7월 산업별 근로자 1인당 월평균 임금총액은 전문·과학 및 기술서비스업, 사업시설 및 지원서비스업, 교육서비스업을 제외한 모든 산업에서 임금 증가

- 2017년 7월 임금상승폭이 가장 컸던 산업은 운수업(9.6%)이었으며, 다음으로 숙박 및 음식점업(9.3%)으로 9%가 넘는 높은 상승률을 기록함.
 - 반면 교육서비스업(-2.1%), 전문·과학 및 기술서비스업(-0.4%), 사업시설 및 사업지원서비스업(-0.4%)은 전년동월대비 임금이 감소했으며, 이외에도 전기·가스·증기 및 수도사업(0.6%), 출판·영상·방송통신서비스업(1.7%)도 저조한 임금상승률을 보임.
 - 7월 임금이 가장 높은 산업은 금융 및 보험업(5,908천 원)이었으며, 가장 낮은 산업은 숙박 및 음식점업(2,017천 원)이었음.

◆ 2017년 1~7월 평균 근로자 1인당 월평균 임금총액은 전기·가스·증기 및 수도사업(-0.9%)을 제외한 모든 산업에서 증가

- 2017년 1~7월 평균 임금상승폭이 컸던 산업은 숙박 및 음식점업(7.1% ↑)이었으며, 도매 및

소매업(5.4%), 운수업(5.0%) 등 주요 내수산업으로 나타남.

- 전기·가스·증기 및 수도사업(-0.9%)의 임금이 감소한 가운데 부동산 및 임대업(1.6%), 보건 및 사회복지서비스업(2.2%)은 저조한 임금상승률을 기록했으며 제조업(2.9%)도 전 산업 평균상승률에 미치지 못하는 수준으로 나타남.

〈표 3〉 산업별 임금 동향(5인 이상 사업체 기준)

(단위: 천 원, %)

	2015	2016	2017			
			1~7 평균	7월	1~7월 평균	7월
전 산업	3,300 (3.5)	3,425 (3.8)	3,381 (4.0)	3,415 (3.0)	3,483 (3.0)	3,518 (3.0)
광업	3,676 (5.6)	3,796 (3.3)	3,780 (3.0)	4,122 (4.3)	3,878 (2.6)	4,325 (4.9)
제조업	3,617 (3.2)	3,755 (3.8)	3,708 (4.3)	3,696 (3.0)	3,817 (2.9)	3,794 (2.7)
전기·가스·증기 및 수도사업	5,856 (5.4)	6,330 (8.1)	6,008 (7.2)	5,242 (6.9)	5,952 (-0.9)	5,275 (0.6)
하수·폐기물처리 및 환경복원업	2,945 (4.8)	3,118 (5.8)	3,029 (5.5)	3,149 (8.2)	3,142 (3.7)	3,242 (3.0)
건설업	2,591 (3.8)	2,673 (3.2)	2,665 (3.1)	2,606 (1.9)	2,770 (3.9)	2,787 (6.9)
도매 및 소매업	3,292 (2.7)	3,428 (4.1)	3,378 (5.0)	3,386 (4.7)	3,559 (5.4)	3,585 (5.9)
운수업	2,952 (5.3)	3,102 (5.1)	3,018 (4.8)	3,031 (-2.4)	3,168 (5.0)	3,322 (9.6)
숙박 및 음식점업	1,824 (2.2)	1,881 (3.1)	1,860 (3.8)	1,846 (6.0)	1,991 (7.1)	2,017 (9.3)
출판·영상·방송통신서비스업	4,012 (2.7)	4,146 (3.3)	4,129 (3.8)	4,098 (5.0)	4,246 (2.8)	4,167 (1.7)
금융 및 보험업	5,488 (4.9)	5,712 (4.1)	5,703 (4.2)	5,638 (6.0)	5,866 (2.9)	5,908 (4.8)
부동산 및 임대업	2,478 (6.7)	2,617 (5.6)	2,588 (5.0)	2,696 (7.5)	2,630 (1.6)	2,797 (3.8)
전문·과학 및 기술서비스업	4,561 (3.2)	4,817 (5.6)	4,627 (5.9)	4,757 (5.5)	4,737 (2.4)	4,737 (-0.4)
사업서비스업	2,002 (4.1)	2,077 (3.7)	2,042 (3.1)	2,112 (5.4)	2,084 (2.1)	2,103 (-0.4)
교육서비스업	3,483 (3.2)	3,556 (2.1)	3,610 (1.9)	4,223 (1.2)	3,717 (2.9)	4,135 (-2.1)
보건 및 사회복지서비스업	2,772 (2.7)	2,860 (3.2)	2,822 (2.7)	2,840 (3.2)	2,885 (2.2)	2,915 (2.6)
여가관련 서비스업	2,512 (4.7)	2,618 (4.2)	2,598 (6.2)	2,754 (4.3)	2,723 (4.8)	2,874 (4.4)
협회·단체 및 기타개인서비스업	2,326 (3.4)	2,477 (6.5)	2,415 (6.5)	2,503 (2.8)	2,527 (4.6)	2,621 (4.7)

주: 1) 임금근로자 명목임금임.

2) () 안은 전년대비, 전년동평균대비, 전년동월대비 상승률임.

3) 9차 산업분류 기준.

자료: 고용노동부, 『사업체노동력조사』.

◆ 2017년 7월 근로자 1인당 월평균 총근로시간은 전년동월대비 2.5시간 (-1.4%) 감소한 171.6시간(월력상 근로일수 20.5일로 전년동월대비 동일)

- 2017년 7월 상용근로자 5인 이상 사업체의 전체 근로자 1인당 월평균 총근로시간은 전년동월대비 2.5시간 감소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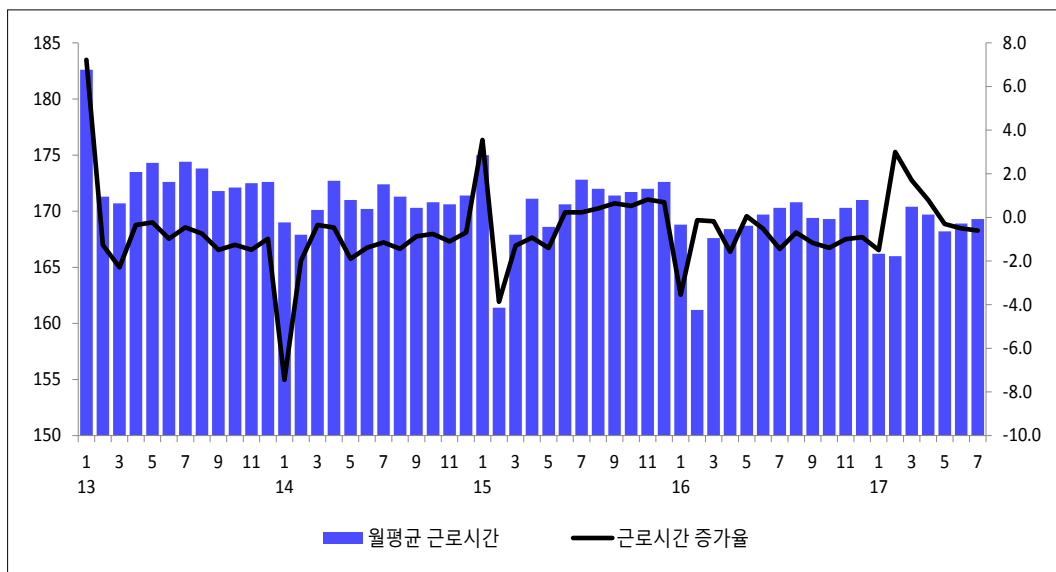
- 상용근로자의 1인당 월평균 총근로시간은 176.8시간으로 전년동월대비 1.5% 감소하였고, 임시·일용직 근로시간은 115.1시간으로 전년동월대비 3.5% 감소함.

◆ 2017년 1~7월 평균 근로자 1인당 월평균 총근로시간은 전년동월대비 1.0시간 감소한 169.3시간(월력상 근로일수 20.2일로 같음)

- 2017년 1~7월 평균 상용근로자의 1인당 월평균 총근로시간은 174.7시간으로 전년동평균대비 0.7% 감소하였고, 비상용근로자는 110.9시간으로 전년동평균대비 1.9% 감소함.

[그림 4] 근로시간과 근로시간 증가율(1~7월 평균) 추이

(단위 : 시간, %)



주 : 임금근로자 근로시간임.
 자료 : 고용노동부, 『사업체노동력조사』.

◆ 2017년 7월 중소기업·대규모 사업체 평균 근로시간은 근로일수 감소 등으로 각각 전년동월대비 1.6%, 0.7% 감소(사업체규모별 1~7월 평균 근로시간은 중소기업·대규모 사업체 모두 전년동평균대비 감소)

- 7월 중소기업 사업체 근로자 1인당 총근로시간은 172.0시간(-1.6%), 대규모 사업체는 170.1시간(-0.7%)으로 나타남.

〈표 4〉 사업체규모별 근로시간 동향(5인 이상 사업체 기준)

(단위 : 시간, %)

		2015	2016	2017		2017	
				1~7월 평균	7월	1~7월 평균	7월
중소 규모	전체 근로시간	173.2(0.7)	172.0(-0.7)	171.1(-1.3)	174.8(-6.3)	170.0(-0.6)	172.0(-1.6)
	상용 총근로시간	179.6(0.7)	178.6(-0.6)	177.4(-1.3)	181.2(-6.2)	176.1(-0.7)	178.1(-1.7)
	상용 소정실근로시간	167.4(0.8)	166.1(-0.8)	165.1(-1.4)	168.6(-6.8)	164.1(-0.6)	166.2(-1.4)
	상용 초과근로시간	12.2(0.0)	12.4(1.6)	12.3(0.8)	12.6(2.4)	12.0(-2.4)	11.9(-5.6)
	비상용근로시간	117.5(-1.5)	115.7(-1.5)	115.5(-0.9)	119.2(-4.9)	112.6(-2.5)	114.6(-3.9)
대규모	전체 근로시간	169.7(0.5)	166.9(-1.6)	167.0(-2.3)	171.3(-7.0)	166.1(-0.5)	170.1(-0.7)
	상용 총근로시간	173.7(0.9)	170.8(-1.7)	170.5(-2.2)	173.0(-7.0)	169.3(-0.7)	171.7(-0.8)
	상용 소정실근로시간	158.3(1.1)	157.0(-0.8)	156.4(-1.3)	159.9(-6.9)	156.8(0.3)	159.5(-0.3)
	상용 초과근로시간	15.4(-1.3)	13.7(-11.0)	14.1(-11.3)	13.1(-9.0)	12.5(-11.3)	12.2(-6.9)
	비상용근로시간	86.9(-7.4)	85.5(-1.6)	88.6(-3.4)	121.2(-6.2)	94.3(6.4)	121.4(0.2)

주 : 1) 임금근로자 근로시간임.

2) () 안은 전년대비, 전년동평균대비, 전년동월대비 상승률임.

자료 : 고용노동부, 「사업체노동력조사」.

◆ 2017년 7월 산업별 월평균 근로시간은 대부분 산업에서 감소

- 7월 근로자 1인당 월평균 근로시간이 가장 많이 감소한 산업은 전기·가스·증기 및 수도사업(-2.3%)과 교육서비스업(-2.3%)이었음.
 - 다음으로 보건 및 사회복지서비스업(-2.0%), 사업시설 및 사업지원서비스업(-1.9%) 등에서 월평균 근로시간 감소폭이 컸으며, 하수·폐기물처리 및 환경복원업(2.3%), 숙박 및 음식점업(1.1%), 출판·영상·방송통신서비스업(0.3%) 등에서는 증가하였음.
 - 7월 월평균 근로시간이 가장 긴 산업은 부동산 및 임대업(188.6시간), 가장 짧은 산업은 건설업(147.3시간)으로 나타남.
- 1~7월 평균 근로시간은 산업별 차이를 보임. 부동산 및 임대업(-2.0%)이 가장 많이 감소한 가운데 하수·폐기물처리 및 환경복원업(2.2%)은 가장 많이 증가함.
 - 1~7월 평균 근로시간이 가장 긴 산업은 부동산 및 임대업(186.4시간), 가장 짧은 산업은 건설업(145.5시간)으로 나타남.

〈표 5〉 산업별 근로시간 동향(5인 이상 사업체 기준)

(단위 : 시간, %)

	2015	2016	2017			
			1~7월 평균	7월	1~7월 평균	7월
전 산업	172.6(0.7)	171.0(-0.9)	170.3(-1.4)	174.1(-6.4)	169.3(-0.6)	171.6(-1.4)
광업	179.2(-0.1)	179.0(-0.1)	178.1(-0.9)	183.1(-4.5)	181.1(1.7)	182.2(-0.5)
제조업	186.3(0.5)	184.5(-1.0)	184.1(-1.6)	188.0(-6.0)	183.1(-0.5)	184.9(-1.6)
전기·가스·증기 및 수도사업	170.8(0.2)	167.5(-1.9)	166.7(-2.8)	172.6(-4.7)	166.4(-0.2)	168.7(-2.3)
하수·폐기물처리 및 환경복원업	177.8(0.0)	177.1(-0.4)	175.6(-1.2)	177.1(-7.4)	179.5(2.2)	181.1(2.3)
건설업	147.4(-0.7)	145.7(-1.2)	146.1(-0.9)	149.0(-6.8)	145.5(-0.4)	147.3(-1.1)
도매 및 소매업	172.9(0.3)	171.4(-0.9)	170.3(-1.9)	173.9(-6.8)	169.4(-0.5)	171.2(-1.6)
운수업	173.9(0.5)	172.3(-0.9)	171.7(-1.2)	174.0(-5.7)	169.4(-1.3)	171.5(-1.4)
숙박 및 음식점업	175.3(0.1)	172.3(-1.7)	170.8(-2.3)	171.2(-5.5)	171.2(0.2)	173.1(1.1)
출판·영상·방송통신서비스업	164.3(1.5)	163.3(-0.6)	162.0(-1.5)	166.4(-7.3)	162.9(0.6)	166.9(0.3)
금융 및 보험업	164.3(0.6)	162.8(-0.9)	161.6(-1.9)	164.9(-8.2)	162.0(0.2)	163.8(-0.7)
부동산 및 임대업	192.8(1.4)	191.2(-0.8)	190.3(-1.2)	192.0(-6.0)	186.4(-2.0)	188.6(-1.8)
전문·과학 및 기술서비스업	164.9(1.0)	163.3(-1.0)	162.4(-1.7)	166.1(-7.4)	162.0(-0.2)	164.6(-0.9)
사업서비스업	173.2(0.8)	171.7(-0.9)	169.7(-1.6)	172.8(-7.0)	167.6(-1.2)	169.6(-1.9)
교육서비스업	151.5(-0.3)	148.5(-2.0)	147.9(-3.1)	159.1(-5.7)	146.9(-0.7)	155.4(-2.3)
보건 및 사회복지서비스업	171.5(1.1)	169.7(-1.0)	168.6(-1.7)	172.0(-6.4)	166.5(-1.2)	168.5(-2.0)
여가관련 서비스업	160.6(1.1)	159.7(-0.6)	158.8(-0.9)	164.3(-4.8)	158.5(-0.2)	162.5(-1.1)
협회·단체 및 기타개인서비스업	163.7(0.5)	163.6(-0.1)	162.8(-0.2)	169.3(-4.6)	163.1(0.2)	167.3(-1.2)

주 : 1) 임금근로자 근로시간임.

2) () 안은 전년대비, 전년동평균대비, 전년동월대비 상승률임.

3) 9차 산업분류 기준.

자료 : 고용노동부, 『사업체노동력조사』.

(김복순, 동향분석실 전문위원)

● 노사관계 및 노동정책 동향

◆ 노동쟁의 조정사건과 조정성립률

- 지난 9월 노동쟁의와 관련된 조정사건 접수건수는 641건
 - 지난 9월 노동쟁의 조정사건 접수건수는 작년 동월건수(608건)보다 33건 많은 수치임.
- 지난 9월 조정성립률 58.9%
 - 지난 9월 조정성립률은 작년 동월 성립률 56.1%에 비해 2.8% 높아진 수치임.

〈표 1〉 2016년, 2017년 9월 조정사건 접수 및 처리내역별 현황

	접수 건수	처리 건수	조정성립			조정불성립			행정 지도	취하 철회	진행중	조정 성립률
			소계 A	조정안 수락	합의 취하	소계 B	조정안 거부	조정 중지				
2017.9	641	620	332	143	189	232	28	204	11	45	21	58.9
2016.9	608	570	280	113	167	219	21	198	14	57	38	56.1

자료 : 중앙노동위원회, 「사건통계」.

◆ 심판사건

- 지난 9월 심판사건 접수건수는 10,093건
 - 지난 9월 심판사건 접수건수는 작년 동월(10,380건)보다 287건 낮은 수치임.
 - 진행 중인 사건을 제외하고 전부 및 일부 인정비율이 13.3%(1,119건), 기각·각하·취하·화해 비율이 86.7%(7,314건)를 차지함.

〈표 2〉 2016년, 2017년 9월 심판사건 접수 및 처리내역별 현황

	접수 건수	처리내역							진행중
		계	전부 인정	일부 인정	기각	각하	취하	화해	
2017.9	10,093	8,433	972	147	1,520	544	2,981	2,269	1,660
2016.9	10,380	8,741	1,134	185	1,539	597	3,308	1,978	1,639

자료 : 중앙노동위원회, 「사건통계」.

◆ 청와대, 노동계 초청 대화

○ 새 정부 출범 후 처음으로 노동계 초청

- 문재인 대통령은 10월 24일 오후 노동계 대표단을 초청해 청와대에서 노동 현안에 대해 논의함.
- 김주영 한국노총 위원장은 노동계를 초청해 준 데 대해 감사를 표시하고, “오늘 노동계와의 대화가 한국노총이 사회적 대화 복원을 위해 제안한 8자 회의의 취지를 받아들인 것으로 이해한다”며 “한국노총은 사회적 대화를 통해 노동문제뿐만 아니라 주거·교육·사회안전망 등 우리 사회의 다양한 문제를 해결해 나가기를 기대한다”고 밝힘.
- 문재인 대통령은 민주노총이 자리를 함께 하지 못한 데 대해 아쉬움을 표시하고, “다음 기회에는 같이 할 수 있는 자리를 가질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하고, 한국노총이 제안한 사회적 대화 복원에 대해 공감을 표시하며, “형식에 구애받지 않고 노사정위원회와 함께 노사정 대표자회의 등을 통해 사회적 대화가 진척되기를 희망한다”고 밝힘.
- 2부 만찬에서 대통령은 “노동존중사회 실현을 위한 노사정 공동의 노력과 사회적 대화 필요하며, 정부와 함께 힘을 모아 나아갈 것”을 당부함.

○ 2부 만찬 중 참석자 대화 요지

- (국회환경미화원노조 김영숙) 정규직 전환 혜택이 많은 비정규직 근로자에게 확산되기를 기대
- (금융노조위원장 허권) 4차 산업혁명에 따른 금융업 구조조정에 대비한 노사정 협의채널을 구축하고, 금융기관의 과당경쟁으로 인한 근로조건 악화에 대한 대응방안 마련 등을 제안
- (자동차노련위원장 류근중) 버스업종 장시간 근로해소를 위한 근로시간 특례업종 축소 등 입법이 조속히 이루어지기를 희망. 버스 준공영제 확대를 위한 정부 지원을 건의
- (핸즈식스 고암에이스 운영인 노조위원장) 사내하청근로자의 정규직화로 근로자들이 자부심, 야근 등 장시간 근로문제 해결을 위해 근로기준법 개정 또는 행정해석 폐지 등 추진 요청
- (영화산업노조 안병호 위원장) 영화 스태프 근로자의 근로조건 개선을 위해 “영화 및 비디오의 진흥에 관한 법률”이 실효성을 갖도록 하는 방안 필요. 근로시간 특례, 포괄임금제 등의 개선을 위한 정책을 추진
- (사회복지유니언 김준이 위원장) 사회서비스공단 설립과 관련하여 공무원 전문가뿐만 아니라 현장의 의견을 수렴하여 추진. 사회복지서비스 종사자의 근로조건 개선을 위한 보건복지부와 고용노동부의 협업 요청

- (청년유니언 김민수 위원장) 공공기관 채용비리 근절 의지에 감사. 각종 고용노동정책에 청년층과 논의채널 구축 요청
- (SK 하이닉스 허정우 위원장) 노동계도 사회공헌을 위한 적극적 노력이 필요. 정부도 원하청 노사의 상생을 위한 자발적 노력에 대한 지원을 요청

◆ 민주노총, 노조하기 좋은 세상 운동본부 출범

○ 10월 18일, 본부 출범

- 민주노총은 올해 상반기 사회적 투쟁을 함께했던 시민사회노동단체들과 취지에 공감하는 단체들이 모여 ‘노조하기 좋은 세상 운동본부’를 구성함.
- 운동본부는 모든 노동자의 노조할 권리와 결사의 자유를 위한 ILO 핵심협약 비준, 노동법 전면 제·개정을 위한 활동, 노조할 권리에 대한 전 사회적 지지여론의 확산을 위한 활동, 촛불항쟁의 주역이었던 미조직 비정규노동자들의 노조가입 확대, 노조법 전면개정을 위한 국회, 정치권 등에 대한 다각적인 압박활동을 통한 제도개선 등 활동을 전개할 계획이라고 밝힘.

◆ 한국노총, 전국노동자대회(11월 18일(토) 오후1시 서울역광장) 준비

○ 전국노동자대회, 비정규직 연대기금, 직가입조직 승인건 결의

- 한국노총은 10월 17일, ‘제413차 회원조합대표자회의’를 열고, 전국노동자대회 개최, 비정규직 연대기금 조성, 직가입조직 승인건을 논의·결의함.
- 한국노총은 비정규직·영세사업장 조직화를 위해 ‘비정규 연대기금’을 조성하기로 하고, 기금 마련은 조직과 조합원의 자발성에 기초하여 추진하기로 함.
- ‘한국노총 직가입조직 승인에 관한 건’과 관련하여 한국공무원연맹과 통합논의를 진행중인 대한민국교육연맹이 10월 말까지 통합이 성사되지 않을 경우, 1년 동안 통합을 전제로 대한교육연맹을 한국노총에 직가입시키기로 함.
- 한국노총 김주영 위원장은 “지난 9월 26일 한국노총이 대통령이 참여하는 노사정 8자회의를 제안한 것은 사회적 대화로 풀어야 하는 문제들이 산적해 있기 때문”이라고 밝히고 “위원장실에 ‘조직화 상황판’을 만들고, 비정규 연대기금을 조성해 한국노총이 조직화에 앞장서는 모습을 보이겠다”고 밝힘.

◆ 보건의료노조 동향

- 대전 을지대병원지부, 서울 을지병원지부 공동 파업
 - 보건의료노조 을지대병원지부(대전)와 을지대학교 을지병원지부(서울)가 10월 10일 오전 부터 무기한 전면파업에 돌입
 - 노조측은 9월 27일 3차 조정이 최종적으로 결렬된 이후 10월 10일 전면파업을 예고한 상태에서 추석연휴기간 동안 대화와 교섭을 통한 타결을 모색해왔지만, 10월 9일 최종교섭에서 사측이 진전된 안을 내지 않음에 따라 결국 파업에 돌입하게 되었다고 설명함.
 - 노조측은 두 병원의 임금 수준이 타 사립대병원의 60% 수준에 불과하며, 명절수당, 하계 휴가비, 근속수당 등도 없어 타 사립대병원과의 격차는 계속해서 벌어져 왔다고 주장함.
 - 보건의료노조는 17일 서울 을지대을지병원 앞에서 결의대회를 개최하고, ▲을지병원의 임금격차 해소, 비정규직 철폐, 노동조건 개선을 위해 끝까지 투쟁, ▲대전-서울을지병원의 모든 조합원은 단결하여 승리의 그날까지 흔들림 없이 함께 할 것을 결의, ▲5만 조합원과 함께하는 산별적 투쟁으로 환자존중, 직원존중, 노동존중의 을지병원을 만들어 나가는데 함께 할 것을 선포함.

◆ 전교조 투쟁 총투표 공고

- 11월 6~8일 ‘총력투쟁’ 조합원 총투표
 -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은 10월 18일 기자회견을 통해 11월 6일부터 8일까지 조합원 총투표를 진행한다고 공고함.
 - 전교조는 이번 총투표에서 ‘성과급-교원평가 폐지, 법외노조 철폐-노동기본권 쟁취를 위한 총력투쟁을 전개한다는 것을 알리고, 총력투쟁에 연가(조퇴) 투쟁을 포함할지 여부를 결정할 예정임.
 - 전교조 관계자는 11월 1일부터 지도부 단식·식발 투쟁에 돌입할 것이며, 교육부, 고용노동부와 집중적인 교섭을 실시할 예정이라고 밝힘.

◆ 최동열 전 기륭전자 회장 법정 구속

- 임금체불·노사합의 파기혐의로 징역 1년 선고
 - 법원이 노조와 정규직 전환 합의를 파기한 최동열 전 기륭전자 회장에게 실형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함.
 - 서울중앙지법 형사18단독(판사 이강호)은 11일 “국회 서약을 어기는 등 피고 책임이 절

대 가볍지 않다”며 “징역 1년을 선고한다”고 밝힘.

- 기륭전자 비정규노동자들은 2005년 7월 노조 결성을 이유로 전원 해고된 바 있음. 이후 1,895일 동안 투쟁한 끝에 국회 중재로 2010년 11월 회사와 1년 6개월 뒤 정규직 전환에 합의했지만, 회사는 중간에 경영난을 이유로 복직시기를 1년 연기하자고 제안했고 노동자들은 이를 수용함. 이후 회사는 복직한 노동자들에게 업무를 부여하지도 임금을 지급하지도 않음. 최회장은 그해 12월 불시에 사업장을 이전하는 야반도주까지 감행함.
- 법원은 “회사가 직접고용하겠다는 내용을 국회에서 서약했고 노사합의가 대대적인 언론 보도로 알려졌는데 회사는 이행을 정면으로 거부했다”며 “체불임금·근로자 수·규모를 비춰 봤을 때 책임이 절대 가볍지 않은데 여전히 근로자로 인정하지 않는 태도와 책임이 없다는 태도로 일관하고 있다”고 언급함.

◆ 공공기관 ‘공공연대기금’ 설립위원회 발족

- 공공기관 성과연봉제 인센티브로 만드는 ‘공공연대기금’ 설립위원회 발족
 - 10월 16일, 노동자위원 5명, 사용자위원 4명, 공익위원 6명으로 구성된 공공상생연대기금 설립추진위원회 발족식이 개최됨.
 - 설립추진위는 공공기관 노동자들이 반납한 성과연봉제 인센티브를 재원으로 비정규직 처우개선과 청년일자리 창출을 지원하는 방안을 정교화해 나간다는 계획임.
 - 공동대책위원회 관계자는 “지난해 치열했던 성과연봉제 저지투쟁이 결실을 맺게 됐다”며 “지난 정부의 실패한 정책에서 나온 부당이익을 사회화해 사회공공성을 강화하는 역할을 할 것”이라고 설명함.

◆ 고용노동부, 특수형태근로종사자 보호방안 마련 계획

- 인권위의 권고(2017. 5. 23)에 따른 조치
 - 고용노동부는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의 노무제공 실태에 대한 면밀한 조사와 노사 및 전문가 간 심도있는 사회적 논의를 통해 노동기본권 보장을 위한 입법적 보호방안을 마련·시행하겠다는 법·제도 개선 입장을 인권위에 전달한 바 있음(2017. 8. 29).
 - 고용노동부는 10월부터 다양한 특수형태근로자의 노무제공 실태에 대한 조사를 실시하고 있으며, 조사결과를 토대로 보호방안을 마련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힘.
 - 고용부 관계자는 구체적인 법·제도적 방안에 대해서는 아직 결정된 바 없으며, 고용부가 학습지교사, 캐디 등 특수근로자 노동3권을 인정키로 결정했다는 일부 언론보도는 사실이 아니라고 밝힘.

◆ **고용노동부, 현장노동청 17일간 총 6,138건 접수·상담**

- 노동행정 관행·제도 개선 관련 대국민 의견 수렴·반영을 위한 현장노동청 운영 종료
 - 주말 포함, 지난 17일 동안 현장노동청에 3,100건의 제안·진정서가 접수되었고, 3,038건의 현장 노동상담이 진행됨.
 - 김영주 고용노동부장관은 전국 9개 주요 도시에 설치된 10개 현장노동청을 모두 방문하여 현안에 대하여 노사 양측 등으로부터 직접 제안을 받고 상담도 실시함.
 - 서울현장노동청 개청식(9. 12) 직후, 장관이 직접 받은 제1호 국민 제안·진정은 13일만에 해결되었고, 대구·중부 현장노동청 방문 시 접수받은 2개 사업체에 대해서는 그간의 조사결과를 토대로 각각 불법파견노동자를 직접 고용토록 시정지시를 내림.
 - 고용노동부는 현장노동청에 접수된 제안·진정서를 10월 중 집중적으로 검토하여 정책 반영 여부 등을 결정·처리하고, 이를 종합하여 11월 초 현장노동청 성과보고대회를 개최할 예정이라고 밝힘.

◆ **고용노동부, 파리바게뜨 근로감독 결과 발표**

- 파리바게뜨에 대해 불법파견 제빵기사 등 5,378명 직접고용, 연장·휴일근로수당 등 체불임금 총 110억 1,700만 원 지급 지시
 - 고용노동부는 지난 7.11부터 6개 지방고용노동청이 합동으로 실시한 파리바게뜨 본사(이하 “파리바게뜨”), 협력업체, 가맹점 등 전국 68개소에 대한 근로감독 결과를 발표함.
 - 고용부는 파리바게뜨가 가맹점 근무 제빵기사를 불법파견(무허가 파견 등)으로 사용한 것을 확인하고, 파리바게뜨에 대해 제빵기사 등 5,378명을 직접 고용하도록 시정지시하고, 미이행 시 사법처리 및 과태료를 부과할 계획이라고 밝힘.
 - 아울러 제빵기사에 대한 연장근로수당 등 총 110억 1,700만 원이 미지급된 사실도 확인했는데, 이는 서울지방고용노동청 디지털포렌식팀이 전체 제빵기사 등에 대한 전산자료를 일일이 확인·검토한 결과임. 고용노동부는 미지급 수당을 조속히 지급하도록 시정지시하고, 미이행 시 바로 사법처리한다는 계획임.
 - 불법파견 의혹과 관련하여 고용부는 파리바게뜨가 제빵기사 등에 대해 사실상 직접 지휘·명령을 하여,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파견법”)상 사용자주로서의 역할을 한 것으로 확인함.
 - 실제로 파리바게뜨는 제빵기사에 대해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가맹사업법)상 교육·훈련 외에도 채용·평가·임금·승진 등에 관한 일괄적인 기준을 마련, 시행하였을 뿐만 아니라, 파리바게뜨 소속 품질관리사(QSV)를 통해 출근시간 관리는 물론,

업무에 대한 전반적인 지시·감독을 함으로써 가맹사업법의 허용범위를 벗어나 파견법상 사용사업주로서 역할을 한 것으로 확인함.

- 결론적으로, 협력업체는 파견사업주, 파리바게뜨는 사용사업주가 되며, 협력업체·파리바게뜨 모두 파견법상 무허가 파견, 파견대상업무 위반 등 불법파견의 책임을 지게 됨.
- 고용부 관계자는 “제빵기사들이 실제로 파리바게뜨 본사의 지휘·명령을 지속적으로 받고 있음에도 프랜차이즈 산업이라는 이유만으로 노동관계법의 사각지대가 되어선 안된다”고 강조하면서, “앞으로도 노동관계법상 보호가 취약한 업종에 대해 선제적 감독을 실시함으로써 취약 노동계층에 대한 보호를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힘. **KLI**

(송민수, 동향분석실 전문위원)